

D램과 낸드플래시 하나로

삼성전자, '5G 폰' 공략 멀티칩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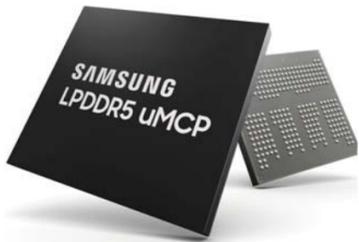
'LPDDR5 uMCP' 신제품 출시
대용량 서비스 안정적 지원
다양한 용량으로 선택폭 넓혀

삼성전자가 d램과 낸드플래시까지 하나로 합쳤다.

삼성전자는 LPDDR5 uMCP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D램과 낸드플래시를 결합한 멀티칩 패키지다. 최고 성능 메모리인 LPDDR5와 UFS3.1을 지원하는 최신 낸드플래시를 결합했다.

크기는 가로 11.5mm에 세로 13mm에 불과하다. 모바일 기기 설계에 유용



LPDDR5 uMCP / 삼성전자

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저가 스마트폰 사용자에도 고해상도 콘텐츠 등 대용량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량은 모바일 D램은 6GB에서 12GB까지, 낸드는 128GB부터 512GB로 다양하게 구성해 제조사에 폭넓은 선택폭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 손영수 상무는 "이번 제품은 고해상도 영상의 끊임없는 스트리밍과 고사양 게임은 물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까지 5G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메모리 솔루션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협력을 강화해 급성장하는 5G 스마트폰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6G 기술 이끌 의장사에 'LG전자' 선정

美 3대 통신사·반도체 등 48개 기업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 분과 의장

LG전자가 6G 기술도 주도하게 됐다.

LG전자는 지난 3일 미국통신산업협회(ATIS) 주관 '넥스트 G 얼라이언스(Next G Alliance)'의 의장사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넥스트 G 얼라이언스'는 ATIS가 6G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창립한 단체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와 장비 및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 4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총 6개 분과로 웰컴, 노키아, HPE 등이 의장사를 맡고 있다.

LG전자는 CTO부문 이동통신 책임연

구원(박사)이 단체의 애플리케이션 분과 의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으로, 향후 6G 관련된 선행 기술 논의 및 서비스 방향성 제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애플리케이션 분과는 6G의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한 기술 요구사항을 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6G 이동통신은 2025년경 표준화 논의 시작해 2029년에는 상용화가 예상된다. 5G 대비 한층 더 빠른 무선 전송속도와 저지연·고신뢰의 통신지원이 가능하다. 사람, 사물, 공간 등이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물지능 인터넷(AIoE: Ambient IoE)을 가능하게 할 수단으로 여겨져 유수의 글로벌 업체들이 앞다퉈 뛰어 들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19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손잡고, 'LG-KAIST 6G 연구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글로벌 무선통신 테스트 계속 장비 제조사 키사이트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 6G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전자 미래기술센터장 김병훈 전무는 "5G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핵심 산업을 선도하는 기반 기술로 인식되면서, 5G 이후 차세대 6G 이동통신에 대한 기술 선점 경쟁이 글로벌로 본격화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준비를 통해 6G 이동통신의 표준화 및 상용화 단계에서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아우디 전기차에 초고성능 타이어 공급

한국타이어 '벤투스 S1 에보3 ev'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는 아우디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스포츠카 모델인 'e-트론 GT'에 전기차용 초고성능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3 ev'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벤투스 S1 에보3 ev는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의 특성에 맞춘 전기차용 초고성능 타이어로, 강력한 주행성능을 구현하면서도 무게와 소음, 회전저항 등을 최소화했다. 특히 엔진음이 없는 전기차 특성에 맞춘 트레드 패턴을 적용해 노면 소음을 줄였다.

한국타이어는 아우디와 기술력, 품질에 대한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다. 프리미엄 세단 A3, A4부터 프리미엄 SUV 라인업 Q3, Q5, Q7과 SQ7, Q8과 SQ8 뿐 아니라 RS Q8, RS7 스포츠백, RS6 아반트, RS4 아반트, RS5 쿠페, TTRS 등 아우디 RS 라인업까지 다양한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기차 e-트론에도 신차용 타이어



아우디 최초 순수 전기 스포츠카 'e-트론 GT'.

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새로운 컴파운드 기술을 통해 내구성을 극대화했다"며 "온도와 시간, 압력 등의 균형을 최적의 비율로 구현하는 최첨단 기술력으로 더 높은 내구성을 확보하면서도 마찰력과 전반적인 회전저항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며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하고 전기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가 상용화되기 전부터 전기차 세그먼트별 맞춤형 기술 개발 전략을 세워 관련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양성운 기자

삼성 더 프레임

몬드리안 등 작품 23점 추가

삼성전자 더 프레임이 몬드리안 등 새로운 작품을 담는다.

삼성전자는 스페인 티센 보르네미사 국립미술관과 협업해 20세기 주요 미술 작품 23점을 추가로 서비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작품은 피에트 몬드리안과 바실리 칸딘스키 등 20세기를 대표하는 유명 작가 작품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작품은 더 프레임 '아트스토퍼'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 40여개 유명 미술관과 1500여점 작품도 함께 제공된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성일경 부사장은 "이번 협업으로 더 다양한 20세기 대표 미술 작품들을 더 프레임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신진 작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일상에서 예술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기아 더 뉴 K9 전면모습.

기아, 3년 만에 'K9 부분변경 모델' 공개

최고 수준 첨단 주행 사양 등 탑재

기아가 3년 만에 대표 플래그십 세단 K9의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을 공개했다.

기아는 15일 플래그십 세단 '더 뉴 K9'의 온라인 쇼케이스 영상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더 뉴 K9은 동급 최고 수준의 다양한 최첨단 주행·안전·편의 사양과 품격있고 모던한 디자인 등으로 대형세단에 걸맞은 최상의 상품성을 갖췄다. K9은 국내 세단 시장에서 G80과 E클래스, 5시리즈, S90 등과 치열한 경쟁에 나선다.

더 뉴 K9은 최고 수준의 첨단 주행·안전·편의 사양을 대거 탑재했다.

기아는 더 뉴 K9에 첨단 주행 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승차감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확보했으며 탑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적용했다.

세계 최초로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PGS)과 기아 최초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적용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행 환경을 구현했으며, 전 트립에 기본으로 탑재한 고속도로 주행 보조2(HDA2),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MCB)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통해 주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 터치 방식으로 운전자와 상호작용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지문 인증 시스템 ▲필기 인식 통합 컨트롤

러 ▲터치 스크린 기능이 적용된 뒷자석 듀얼 모니터 등을 새롭게 장착했다.

더 뉴 K9은 신차 수준으로 변경된 고급스러운 내·외관을 통해 품격있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거듭났다. 외장은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에 V 형상의 정교한 크롬 패턴을 적용해 플래그십 세단의 존재감을 강조했고, 좌우 수평으로 리어램프를 연결해 와이드한 느낌을 살리는 동시에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내부는 시트의 허리받침, 쿠션까지 확대된 쉐딩 패턴과 고급스러운 리얼우드 소재, 다이아몬드 패턴의 컨트롤러 등을 통해 인테리어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

더 뉴 K9은 넉넉한 힘과 정숙성을 갖춘 3.8가솔린과 역동적인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3.3터보 가솔린 총 2개 모델로 운영되며, 모델별로 달리 구성했던 기존의 트립 체계를 2개(플래티넘, 마스터즈)로 단순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3.8가솔린 플래티넘 5694만원, 마스터즈 7137만원이며, 3.3터보 가솔린의 경우 플래티넘 6342만원, 마스터즈 7608만원이다.

기아 관계자는 "더 뉴 K9은 기아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고객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차량이다"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위니아 컬러팝 전자레인지

/위니아닷컴

위니아닷컴 MZ세대 겨냥 '컬러팝 전자레인지'

비비드톤 오렌지 컬러 채택

위니아닷컴이 MZ세대를 겨냥한 전자레인지를 새로 선보였다.

위니아닷컴은 '위니아 컬러팝 전자레인지(20L)'를 1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10만원대다.

이 제품은 MZ세대를 겨냥해 차별화된 비비드톤 오렌지 컬러를 채택했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최적의 메뉴 기능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훈밥의 달인 ▲해동의 달인 ▲생활의 달인 ▲조리의 달인 등 원터치 메뉴로 만들었다.

성능도 개선했다. 오목거울의 원리(RRS)를 이용해 음식물을 균일하고 빠르게 가열해준다.

/김재웅 기자